

북한 참가 이끌어 한반도 평화의 축제 만들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84

8월 5일부터 14일간
동호인 마스터즈 대회
가족 등 1만여명 이상 참가

세계수영연맹 비용 지원
정부·정치권 다각 접촉
북한 참가 적극 노력

대테러·출입국 협조서
홍보·관광객 유치까지
법정부 차원 지원 총력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각국의 대표 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마스터즈 대회도 함께 열린다. 특히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통해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감동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함께 즐겨요, 마스터즈 대회=각국의 명예를 건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열한 메달 경쟁이 끝나면 곧바로 일반인들의 수영축제 '마스터즈대회'가 열린다.

마스터즈 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선수권대회가 열린 경기장에서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 63개 경기가 개최된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마스터즈대회는 만 25세 이상으로 FINA가 제시한 나이별 기준 기록을 넘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다만, 마스터즈 대회는 수영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연맹이나 클럽을 만들어 '클럽 대항전'을 벌이는 방식이라서 각 국 수영연맹에 등록된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해야만 참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다페스트 마스터즈대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해 선수권 대회 못지않은 치열한 경합을 펼쳤고, 48만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대회 참가자들이 FINA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길 만큼 권위 있는 대회다.

마스터즈 대회는 선수가 참가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제비까지 스스로 부담하며 단순히 경기 참가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겸하기 때문에 시와 조직위는 광주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마스터즈 참가자 숙박을 위해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선수촌 24개동 1620세대 4860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며,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선수촌과 경기장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AD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고풍스런 국회의사당 앞에 유유히 흐르는 다뉴브강 위로 하이다이빙 경기가 펼쳐졌다.

드 소지자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스터즈대회의 개막식은 8월11일 'Playing Water'란 주제로 남부대학교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8월18일 '다함께 하나 되어'란 주제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마스터즈 대회 폐막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31일간의 대장정은 막을 내리게 된다.

참가 신청은 수영연맹에 등록된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동호회별 수영연맹에 등록 및 인증이 완료 되면 대회관리시스템(GMS, <https://registration.fina.org>)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참가비를 납부

하면 완료된다.

대회 등록비는 선수는 65달러, 선수가족 및 친구는 40달러이며, 경기 참가비는 종목별로 경영 18달러에서 수구 390달러까지 다양한 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북한 참가로 '평화의 물꼬'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와 FINA와 협의를 거쳐 북한 선수단 뿐만 아니라 예술단, 응원단 등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여자 수구 단일팀 구성제안을 비롯해 북한 정상급

예술단의 광주공연, 남북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의 남북선수 경기 응원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제안한 상태였다.

지난 2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IOC 3자 회담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북한 체육상에게 북측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초청 서한을 전달했다.

세계수영연맹(FINA)도 북한 선수단 참가 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FINA 코넬 마르클레스크루 사무총장이 그동안 북한이 FINA 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북한에 현재 진행중인 엔트리 등록 등 참가를 위한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국제수영연맹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관심 속에서 대회 준비=정부는 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법정부처로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수영대회 개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법정부처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체부는 수영대회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만큼, 홍보로드맵 수립과 범정부 홍보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를 지원하고, 해외문화원,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 홍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팝 스타를 활용한 한류콘서트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회 관련 특별전시공연 프로그램 편성 및 대회와 연계한 광주·호남권 관광코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 공항·항만 출입국 협조, 대회운영인력 지원 등 소관 부처에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경기 단체장들, 법정부처원의 대회 홍보 등 대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특별기고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되는 젊은이의 메카를 향해



조영택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광주는 젊음과 열정의 도시로 변모한다. 월드 스타 BTS(방탄소년단)와 국내 탑스타 가수들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3만여 명의 팬들이 광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초대형 슈퍼콘서트가 4월 2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대형 문화 이벤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슈퍼스타와 팬들이 보여준 파급력은 가히 상상을 뛰어 넘는다. 콘서트 출연진 확정 전부터 입장권 구입 문의로 조직위 업무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입장권 배부 사이트(11번가)는 아주 단시간(5초)에 예정된 표를 매진시켰다. 전 세계 수 억여명의 팬덤(fandom)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의 공연 이후 온라인에서의 대회 홍보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스포츠 대회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첫 출발은 제법 순탄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영 6관왕이자 대회 MVP(최우수 선수)에 뽑혔던 일본의 수영 스타 아케에 리카코(19세)는 훈련 도중 급

성 백혈병이라는 난치병을 진단받고도 트위터를 통해 "힘들지만 지지 않겠다"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강인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그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싶다.

우리는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건강한 사회 기풍(氣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어렵게 물을 무서워하고 천식 치료 목적으로 수영을 시작한 박태환 선수는 자신의 체력적 열세를 끊임없는 연습과 도전으로 극복했고 그 결과 한국인 최초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역시 한국인 최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이자 한때 신드롬(syndrome, 증후군)을 만들어낸 김연아 선수도 유소년 시절부터 끊이지 않는 부상에도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고난도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총 11차례나 새로 썼다. 아울러, 세계 최정상의 기량으로 여자 골프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다.

이제 대회 개막이 84일(19일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3000여명의 대

회 운영인력, 4만여점의 경기운영 물자와 50만 점이 넘는 선수촌 편의 물자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이 진행 중이다. 5G(5세대 무선통신) 상용화에 맞춰 IT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첨단기술이 각 경기장과 선수촌에 적용되어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보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기장과 선수촌은 물론 도시 전역이 문화 라이브 사이트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응원과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지향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프린지 페스티벌과 월드 뮤직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축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개최효과가 항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광주는 수영 기반의 '스포츠 메카', 다양성과 포용성이 내재된 '문화 허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영을 비롯한 스포츠계에서 도전 정신을 갖춘 수많은 꿈나무들이 육성되고 문화적 개방성을 가진 도시의 젊은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대 광주 역사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 온 광주일보가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되는 젊은이들의 스포츠·문화 성지(聖地) 광주의 새로운 도시로 도약하는 데 갑잡이 역할을 계속하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멋과 맛, 예술이 숨쉬는 곳

목포에서 힐링하십시오.

목포시외시외장 (목포시외시외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직원일일대)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직원일일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일일대)

영산강사업단 (영산강사업단 직원일일대)

씨월드고속해리(주) (대표이사 회장 이혁영)

신안관광비치호텔(주) (신안관광비치호텔 직원일일대)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직원일일대)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경)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직원일일대)

지회장 송지현 (지회장 송지현)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직원일일대)

지부장 김지동 (지부장 김지동)

(유)진영 (대표이사 박영)

(유)중환 (대표이사 양환)

(유)서남환 (대표이사 서남환)

목포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직원일일대)

도부임직원일일대 (도부임직원일일대)